

# 고깔형 관모(Conical hat)에 관한 연구

전 현 실\*(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 순 제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고깔형 관모란 챙이 없고 모체가 뾰족하게 솟은 삼각형상의 관모를 말하며, 上代 北方 胡服인 窄袖窮袴의 二部式 衣服과 함께 착용되었던 우리 나라 관모의 기본형상이기도 하다. 중국의 문헌에는 이러한 형상의 관모를 가리켜 특별히 '形如弁'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고깔(갓갈)이란 바로 이러한 弁의 우리말 풀이로서, 그 어원적 해석은 '갓'(尖角·돌출부)과 '갈'(관모)이 조합된 뾰족한 관모라는 뜻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우리의 고깔형 관모는 앞에서 뒤쪽으로 봉합선이 있는 삼각형상의 관모로서, 이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에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스키타이인들로부터 영향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고깔형 관모의 착용 예를 찾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스키타이인들이 역사무대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상부가 뾰족한 원추형의 또 다른 형태의 고깔형 관모가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어, 고깔형 관모의 착용은 이미 폭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기원전 18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의 유물을 살펴본 결과, 고깔형 관모는 흑해 부근, 누란, 하트라, 노인-우라, 크린-야르, 보카즈콰이, 팔미라, 넴루트다이, 하트라, 달베르진-테페, 알마아타 등지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는 스키타이인들의 활동 시기 이전부터 흑해 부근 이외에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도 고깔형 관모가 착용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고깔형 관모를 쓰고 있는 인물들을 일별해 보면, 이들은 모두 이부식의 의복을 착용하고 騎馬·遊牧 등의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도·유럽어족이라는 동일 언어군에서 파생되어 나온 민족이다. 언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사용자들 특정문화(민족)나 신체적 특징(인종)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신중해야 하나, 이들 언어가 하나의

어족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문화로부터 분화되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들간에는 상당히 유사한 문화를 발달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술하였다시피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깔형 관모는 대체적으로 지역적 분포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고깔형 관모로 분류된다. 하나는 흑해 부근, 하트라, 누란, 노인-우라 지역에서 보여지는 형태인데, 이들은 帽頂이 낮은 고깔형으로서 양 귀를 덮으며 정면에서 보았을 때 아등변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앞에서 뒤쪽으로 봉합선이 있도록 바느질을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크린-야르, 보카즈콰이, 팔미라, 넴루트다이, 하트라, 달베르진-테페, 알마아타 등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형태인데, 帽頂이 높은 고깔형 관모로 부채꼴 형태의 한 면을 원추 형태로 만들어 봉합한 형상이다. 낮은 고깔형 관모는 주로 흑해 연안의 남러시아와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높은 고깔형 관모는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알타이 산맥 以西 지역에 나타나고 있어 형태별로 지역적 분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트라와 누란 지역에는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깔형 관모는 남러시아 부근에서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스텝지역의 기마 유목민족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집단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민족의 공통적인 관모 형태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들은 이부식 의복을 착용하고 있고 인도·유럽어족에 속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깔형 관모가 상징하는 무풍적·상무적 성격만이 지적되어 왔는데 반하여, 서아시아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정이 높은 고깔형 관모는 착장자가 왕이나 귀족, 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신분상징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히타이트 유적에 나타난 문자를 해석한 P.Jensen에 의하면,  과

△은 '왕'을 △△은 '위대한 왕'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히타이트 유적의 여러 신들의 관모가 고깔형이므로 고깔형 관모에 대한 새로운 의미 해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시기상 고대의 일부만 다루었고, 소수의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괄적인 시기에 보다 다양한 자료의 참고가 요구되어 진다.